

## 한국형 다크히어로물의 진수

### 복수대행씨-비스 모범택시

## 금토드라마 인기 잇는다

4월 9일(금) 첫 방송

〈펜트하우스〉 시즌 2 후속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극본: 오상호, 연출: 박준우)가 4월 9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모범택시〉는 “정의를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O.K”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항극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으로 〈닥터 탐정〉을 통해 사회 고발 드라마 전문 감독으로 떠오른 박준우 감독과 범죄액션물의 신세계를 연 영화 〈조작된 도시〉의 시나리오 작가 오상호가 의기투합하여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로 탄생시켰다. 여기에 이제훈, 이솜, 김의성, 표예진, 차치연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가세하여 올봄 안방극장에 ‘K-다크히어로 신드롬’을 일으킬 웰메이드 사이드 액션 드라마 탄생을 예고했다. 이제훈은 특수부대 출신이자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 김도기 역을 맡았다. 도기는 어머니가 연쇄살인마에 의해 세상을 떠난 후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을 무력으로 단죄하는 일에 나선다. 이솜은 정의를 좇는 열혈 검사 강하나 역을 맡았다. 학벌, 외모, 성격 모든 것을 갖췄지만 불의 앞에서는 폭력 DNA가 발현되는 인물이다. 실종된 전과자의 행적을 추적하다 무지개 운수와 김도기의 정체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이들과 대립하며 극에 긴장감을 선사한다. 김의성은 무지개 운수의 대표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무력으로 단죄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는 장성철 역을 맡았다. 성철은 피해자에게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혹하다 싶은 만큼 잔인해지는 이중성을 지녔다. 표예진은 무지개 운수 소속 해커이자 신상털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고은 역을 맡았다. CCTV,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로 작동되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김도기의 눈과 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 밖에 뮤지컬 디바 차치연은 지하 금융계의 큰손 ‘대모’ 역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장혁진과 배유람은 무지개 운수의 엔지니어로 극에 활력을 선사한다. 한편 〈모범택시〉는 원작의 재미를 십분 살리기 위해 에피소드 중심의 미드식 구성 방식을 택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이를 관통하는 큰 줄기가 있어 탄탄하게 전개된다. 또한 주인공 도기를 비롯한 모범택시 직원들의 모습은 〈어벤져스〉 시리즈를 방불케 한다. 제작진은 “단순 히어로물이 주는 사이드를 넘어서는 강렬한 공감과 쾌감을 선사하겠다. 미드를 뛰어넘는 한드의 시대에 한국형 히어로물의 모범이 될 터이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답답한 시대에 시청자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모범택시〉는 SBS 금토드라마 불패 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달리는 차 안에서 펼쳐지는 신개념 뮤직 토크쇼



## 탁재훈 × 김구라 × 규현 × 음문석 환상의 티키타카, 4월 4일(일) 첫 방송

신규 예능 <티키타카>(연출: 이관원, 최장원/이하 <티키타카>)가 4월 4일(일) 첫 방송된다.

<티키타카>는 달리는 차 안에서 펼쳐지는 신개념 드라이빙 뮤직 토크쇼다. 연예계 내로라하는 입담꾼인 탁재훈, 김구라, 규현, 음문석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화제의 인물을 초대해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며 리얼한 토크를 펼친다. 게스트들은 다채롭고 진솔한 이야기는 물론, 그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속마음까지 꺼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직접 부르며 시청자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긴다.

MC 탁재훈, 김구라, 규현, 음문석이 보여줄 '티키타카 케미'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악마의 입담'을 자랑하는 '드림의 신' 탁재훈과 '대체불가 토크 장인' 김구라는 티격태격 앙숙 케미로 숨 돌릴 틈 없이 웃음을 자아낼 전망이다. 또한 만능 MC 규현과 예능 첫 고정 MC에 도전하는 배우 음문석의 활약에도 기대감이 모인다.

한편, <티키타카>는 코로나19로 운행이 임시 중단된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개조해 서울 곳곳을 누빈다.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변신한 공간에서 속이 뽕뽕리는 노래와 함께 서울의 풍경을 담아, 보는 재미까지 더할 예정이다.

유쾌한 토크와 이에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노래로 즐거움을 선사할 <티키타카>는 4월 4일(일) 밤 11시 5분 첫 방송된다.



## 진짜 '달인'이 나타났다!



## 2020 달인 대상 '생존 달인' 강은미 출격



경기도 화성시의 한 무인도에서 펼쳐지는 <정글의 법칙 - 생존의 달인>(연출: 김진호)이 오는 3월 27일(토) 밤 8시 55분 첫 방송된다.

이번 정글 생존에 도전장을 내민 병만족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열정과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달인'이라는 것. '원조 달인'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K-리그의 생존 달인' 이동국, '공개 코미디계의 달인' 최성민, '가요 제작계의 달인' 라이머와 '9년 차 래퍼' 칸토, 그리고 '트롯 특전사' 박군, '707특임대 중사 출신'의 유튜버 강은미가 그 주인공들이다.

물이 빠지면 거대한 모래사장이 열리는 천뢰의 섬으로 수십 년 전 버려진 폐건물만 남은 황폐한 곳에서 7인의 병만족은 모든 짐과 도구를 빼앗긴 채 '맨손 생존'에 도전한다.

앞서 '가요계에서 25년째 살아남은 생존의 달인' 라이머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소속사 대표이자 통역사 안현모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인 김세환, 인간 김세환"으로 임하겠다고 정글 생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침에 걸맞게 라이머는 질퍽한 갯벌에 온몸을 던지며 낙지 사냥에 도전, '정글 굴삭기', '황금손', '낙버지' 등 신홍 별명왕에 등극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다.

<정글의 법칙 - 스토브리그 편>에 이어 두 번째 정글에 도전한 'K-리그의 생존 달인'이자 '최장수 플레이어' 이동국. 그는 타고난 피지컬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전천후 활약하며 명불허전, 생존의 달인다운 저력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편에서는 <정글의 법칙> 사상 최초로 비(非)연예인이 병만족에 합류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생활의 달인>에서 '2020년, 올해의 달인 대상'을 수상한 강은미다.

<생활의 달인>을 통해 특전사 출신다운 특급 생존력을 보여준 그녀는 '맨손 생존'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은 물론, 기발한 생존법을 보여주며 병만족을 놀라게 했다. 그녀를 지켜보던 족장 김병만은 "더할 나위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역대 여자 출연자 중 최고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밖에도 <정글의 법칙 - 개척자들 편>에 출연했던 '공개 코미디계의 달인' 최성민과 특전사 출신이자 15살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한 '생활력의 달인' 박군, 그리고 병만족의 막내, '달인 꿈나무' 칸토까지 맨손 생존에 도전하며 '짠'하고 '짠'한 역대급 생존기를 그릴 예정이다.

3월 27일 | 토 | 밤 8시 55분 첫 방송

# 미디어기술연구소 '통합 ID 기반 편성 시스템' 개발

## 일일운행표 편성, 자산화를 One-Stop으로 해결

미디어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콘텐츠 ID를 통합하여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ID 체계는 현재 종편의 제작 미디어 전송부터 비주얼 우상 단 제작 시스템, 송출 미디어 운영 시스템을 거쳐 동영상 포털 시스템을 통한 유통까지 폭넓게 사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통합 ID를 기반으로 일일운행표를 작성하고 운행하여 체계적으로 자산화하는 '통합 ID 기반 편성 시스템'을 미디어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하여 적용을 마쳤다.

편성팀이 작성하는 일일운행표는 화면조정 시간부터 방송 종료까지 프로그램, 예고, 광고, 스크롤 등 방송 시간에 필

요한 수백 개의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 민방에도 공유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동안에는 콘텐츠 ID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 예고 및 광고 소재의 정보들이 공유가 안 되어 여러 시스템에서 일일운행표를 중복으로 작성하고 있었고, 운행 통계를 위한 방송 운행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중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이중 작업을 완전히 없앴고, 수기 입력하는 업무도 개선하여 일일편성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통합 ID가 적용되어 방송 소재 정보가 체계화됨에 따라, 회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일운행표의 정확한 통계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편성팀, ERP팀, 미디어IT팀의 도움이 컸으며, 각 팀의 담당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얻어진 성과이다. 개발을 주도한 미디어기술연구소 류경민 차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콘텐츠의 이름이 되는 ID가 여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고, 통합 ID 기반 편성 시스템은 통합 ID 사용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 ID 기반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여러 업무 흐름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BS에는 수의학 박사 출신 기자가 있다”

- 보도국 정치부 한세현 기자



한세현 기자가 제15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 TV 방송 부문 대상을 받았다. 병리학으로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 기자는 지난해 2월 [취재파일]에 '충격과 공포를 넘어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에 대한 병리, 임상, 수의학적 분석과 각종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평했다. TV 방송 부문 대상을 지상파 영상 송출물이 아닌 뉴미디어 콘텐츠가 받았다는 점도 이채롭다.

### 자기소개를 해 달라.

수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2010년, 공채 17기로 입사했다. 기자를 처음 꿈꾼 건 학생 시절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다. '야생동물의 천국' 옐로스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상사가 이런 조언을 했다. "수학과 학생 상당수는 졸업 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임상수의사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길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그 순간 '기자'란 단어가 머리를 스쳤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어쩌면 집안에 언론인이 많았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장교로 복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다.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분명 실력은 부족했을 거다.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린다.

### 기자로 돌아선 이후에도 수의학 박사까지 땀.

기자가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수의학에 대한 애정도 크다. 수의사란 직업을 '버리고' 언론인이 됐다는 얘기는 듣고 싶진 않았다. 또한 공부하는 기자, 연구하는 기자로서 체계적이며 분석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실력을 쌓

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초의학(병리학)을 전공해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기자로 나갈 마음은 없지만, 광우병 사태나 바이러스 등 수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SBS에는 이런 전문가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 상을 받은 [취재파일]은 어떻게 탄생했나?

지난해 경제부에서 국토교통부를 출입할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이 바이러스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느 동물에서 유래했는지 등 많은 의문이 쏟아졌다. 출입처 업무는 아니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기회가 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마침 어느 해외 학회 편집장이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써서 보내줄 수 있겠냐고 제안해 왔다. 다음 논문 심사 때 가점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영어로 써서 보냈는데, 원고를 본 편집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당신은 기자니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써서 기사로 내보면 어떨겠냐?"라고. 그래서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쉬운 단어로 바꾸고, 스토리 라인도 이해하기 쉽게 가다듬어 [취재파일]로 출고했다.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말에 몰래, 조용히 올렸다.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 상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

### 그동안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상복도 많았다.

사회부, 경제부, 탐사부 등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그동안 좋은 선후배, 동료들을 참 많이

만났다. 그 덕에 삼성그룹의 탈세 의혹, 부실 군 의료 실태 등을 보도할 수 있었다. 한국기자상, 방송기자대상, 올해의 방송기자상, 앰네스티언론상, 인권보도상, 민주언론상 등을 받았지만, 모두 선후배 동료들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것들이다. SBS 구성원들의 빼어난 역량, 장점은 키워주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는 조직 문화, 30여 년 동안 지켜온 브랜드 가치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능력보다 복이 많았다.

### 기자 전직을 후회한 적은?

거짓말 같지만 단 한순간도 없다. 기자라는 직업과 SBS라는 조직을 뜨겁게 사랑한다. 주어진 일을 더 잘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쉽고 불만스러울 뿐이다.

### 끝으로 한마디

지금까지 해외 학술지에 논문 십여 편을 실었다. 그때마다 소속을 'SBS 보도본부'라고 썼다. SBS에 대한 자부심이자, 애정의 표현이었다. 또한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보던 기초의학 연구자에게 '기자의 길'을 걷게 해준 SBS,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선후배, 동료가 보여준 관심과 애정, 배려, 희생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이 조직을 떠날 때, 좋은 기자보다 '좋은 동료'로 기억되고 싶다. 더 겸손하게 열심히 살겠다.

## “〈펜트하우스〉의 선택은 유효했다”

- 공희정(드라마 평론가)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순간 최고 시청률, 수도권 및 전국 시청률, 2049 시청률, 드라마 및 출연자 화제성, 클립 조회 수, VOD 차트 등 드라마를 평가하는 각종 지표마다 1위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지상파 드라마의 새로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개연성도, 현실성도 없이 도를 넘어선 이야기라며 굽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펜트하우스〉는 최고 시청률 28.8%(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무엇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렇다 치고 식의 전개’와 ‘상상을 초월하는 과장’이라는 막장 드라마의 주요 장치를 몇 단계 높게 가져간 〈펜트하우스〉는 극단적인 서사를 통해 개연성과 현실성을 논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인과 관계와 합당함을 따지려는 시청자들에게 ‘욕망 복수극’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하는 듯했다. 〈아내의 유혹〉이나 〈조강지처 클럽〉이 남편의 외도, 시집살이, 가정 폭력, 출생의 비밀, 불치병, 패륜 행위 등을 억지스럽고 과장되게 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자신의 현실 경험을 드라마에 투영하며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는 달랐다. 이 시대 최고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있을 법한 일’이라 생각하며 공감하기에는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컸다. 초호화판 헤라펠리스라는 공간부터 낯설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러웠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는 이들이 아직 십 대임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서로에 대한 믿음은 내 편일 때만 작동하는 일회용품이었다. 부부는 욕망을 위한 수단이었고, 자식들은 집착의 대상이었다. 헤라펠리스 사람들은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하고, 한 아이의 죽음을 집단으로 은폐하고, 아내의 등에 칼을 꽂아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강 멘탈 소유자인 이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거머쥐기 위해 더 교묘하고 더 잔혹하게 음모를 꾸며다. 고성과 기괴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것은 최고 상류층 사람들의 가장 저열한 민낯을

목도하는 통쾌한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

사극이 과거의 틀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하듯 모든 드라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책임과 정의, 양심을 뒤로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한 〈펜트하우스〉의 선택은 가장 개연성 있고 현실적이며 꽤나 유효한 것이었다.

악에는 악, 강함에는 강함으로 맞서는 것이 정답인 양 자기 극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펜트하우스〉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뛰어넘으려는 시청자들의 추리력은 한껏 달아오른 복수의 재미를 흔들고 있다. 이미 속내를 들켜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시즌3에서 〈펜트하우스〉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도 유효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새벽 시간, 특별한 이에게 전하는 진심 〈최영주의 아침 편지〉

러브FM(수도권103.5MHz) 월~일 오전 05:00~06:00

3월 8일(월) 방송을 시작한 〈최영주의 아침 편지〉는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청취자와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내 기억 속 한 페이지를 차지한 누군가에게, 또는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속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대신 전한다. 편지를 받는 이와 사연은 각각 다르지만, 주소는 같다. 양천우체국 사서함 300호 〈최영주의 아침 편지〉 담당자 앞. 홈페이지에도 편지 사연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선정된 편지는 최영주 아나운서가 보낸 이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읽어드린다.

펜을 들고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써 본 기억을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한다면, 그는 평온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5시라는 고요한 시간, 온전한 정신으로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듣는 사람의 일상은 분명 단할 것이다.

첫 방송을 모니터해 준 후배가 몇십 년 방송 경력에 있는 사람도 긴장하느냐고 물었다. 방송인의 나이와 경력과는 상관없는 분야가 있다. 진심의 전달이다.

5시에 깨어있는 청취자들이 보낸 편지를 전달하는 방송은 디지털 시대와 상관없이 특별하다. 사연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관통하는 본질이 있다.



그리움과 고마움.

진솔하고 담담해야 하는 방송은 그래서 쉽지 않다.

〈최영주의 아침 편지〉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감사하지만 떨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루를 온전히 성실하고 충만하게 시작하는 청취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싶다. 그렇게 시작해야 호흡이 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긍정 에너지 가득한 이창재 프로듀서와 정다운 작가가 있어서 무척 든든하다.

- 최영주(아나운서팀 부장)



## SBS 타운홀 미팅 개최... 올해 경영 계획 등 설명

SBS 타운홀 미팅이 3월 15일(월), 16일(화), 19일(금) 사흘에 걸쳐 목동 사옥 13층 SBS홀에서 진행됐다. 참석 대상은 SBS의 국장, 팀장, CP, 부장(部長), 담당 등 보직자 90여 명이다.

2021 타운홀 미팅에서는 올해 SBS의 경영 계획과 목동 사옥에 상업시설을 증축하는 사업 설계안(SBS Value

Add Project)이 상세히 설명됐다. 또 단체협약 개정 논의 등 최근 노사관계 현안도 보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었다.

이동희 경영본부장은 “최근 한 일간지 조사에서 SBS가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서 최고의 직장 1위에 선정된 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